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연구

정성훈(대만국립정치대학교)

1. 서론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화권 대학교에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면서 한국어학에 대한 수요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이나 기초자료 구축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용어사전은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연구자들이 한층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한국어학 교재와 함께 전문용어사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학을 위한 전문용어사전은 아직까지 한국어(한글)로만 구축되어 있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나 연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막 한국어학 연구를 시작한 전공자나 연구자들에게는 전문 용어 사전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넘기 힘든 장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화권 전공자나 연구자를 위한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 기초자료’와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병렬 데이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기초자료와 병렬 데이터 구축 작업은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상대적으로 중화권 전공자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전공자의 실제적 요구와 중화권 전공자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의 경험을 조사한 후,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나 연구자가 자기 학습을 통해 한국어학에 대한 전문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어학에 관련한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병렬 데이터를 실제로 구축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구축과 그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 사전이나 대역어 사전이 다소 출간되었으나, 대부분 영어권 학습자나 일본 학습자,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어휘 항목 또한 매우 기초적이었고 제한적이었으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라고는 했지만 기존의 국어사전과 큰 틀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용 사전들은 대부분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고급 학습자나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사전 구축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특히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사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번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위주로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구축 방안 가운데서 의미 있는 논의는 강현화·신

자영· 원미진(2010), 신자영· 원미진(2010), 강현화· 원미진(2012) 등을 들 수 있다.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은 한국어 학습자 사전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표제어 선정을 위해서 5만 개의 어휘목록을 선정하였고, 선정과정의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말뭉치 등에서 추출한 빈도 정보를 활용하는 객관적 방법과 기존 어휘 목록과 비교하면서 일부 어휘를 보충하는 메타 계량(주관적) 방법, 위의 둘을 상호 보완하여 말뭉치 등의 빈도정보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주관적 평정을 활용한 절충적 방법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고할만한 점은 강현화· 신자영· 원미진(2010)에서는 어휘 선정 시, 기 구축된 개별 한국어 기초 어휘 자료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습자 사전의 어휘 목록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객관적, 주관적, 절충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어휘 목록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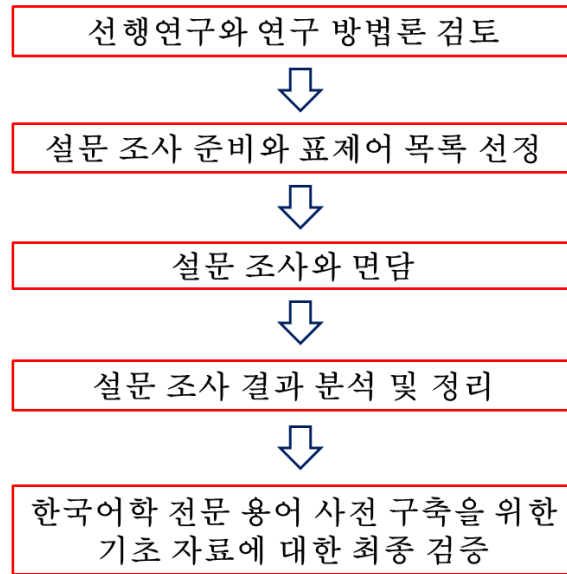
신자영· 원미진(2010)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대역 기술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신자영 원미진(2010)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2010)>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국어 사전을 대상으로 다국어 사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다국어 사전이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이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자 사전을 기초로 하여 외국어로 대역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표제어는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도 여러 나라 언어로 대역될 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현화·원미진(2012)은 <한국어기초사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그 구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이다. 강현화·원미진(2012:7)은 <한국어기초사전>은 두 가지 기능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사전으로서의 기능과 다국어 대역사전 집필의 기초로서의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강현화·원미진(2012)은 기 구축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종합하여 모은 19만 여개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된 어휘를 삭제한 7만 8천여 항목을 1차 자료로 놓고, 전문 연구원들의 중요도 평정 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5만 어휘를 선정하였다. 강현화·원미진(2012)에서 구축한 <한국어기초사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표제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대표형을 정해 나머지 형태를 가표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모든 이형태에 뜻풀이와 예문, 결합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 안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품사가 다를 경우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였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 안에 어미와 줄어든 말을 다의어로 함께 처리하고 있을 경우, 줄어든 말의 로마자 항목을 분리하여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였다. 즉 강현화·원미진(2012)의 <한국어기초사전>은 최대한 학습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 표제어의 뜻풀이 역시 대역을 고려하여 최대한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풀이하였고, 어려운 어휘나 전문용어는 되도록 지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나 강조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보았고,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2. 연구 방법론 검토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 또는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용어사전을 위한 첫 단계는 한국어-중국어 병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에 필요한 한국어-중국어 병렬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문용어사전이나 병렬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중화권 대학원생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포함한 한국어학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도 검토하였다. 그 후 연역적 방법으로 선정한 한국어학 관련 표제어 목록에 대해서 대만, 중국, 한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가 될 만한 표제어 목록을 가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을 한 이유는 꼭 필요한 표제어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화권 대학원생들이 한국어학을 연구할 때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지 않는지에 대해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설문에서는 한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대학원의 기본 교재와 사전에서 한국어학(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역사비교언어학, 한국어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기본 용어를 1,000여 개 선정하였고, 한국어학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1차로 840개의 표제어를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면담용 설문 문항도 작성하였는데 주로 <한국어학 전문 용어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한국어학 용어 사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항들이었고, 840개의 표제어에 대한 난이도도 조사하였다. 설문은 총 6회에 걸쳐 63명을 조사하였고, 설문을 할 때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 설문 조사 과정 및 소요 시간, 설문 조사에 대한 유의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3. 설문 조사와 설문 분석 결과

3.1 설문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어로 대만(10명), 중국(26명), 한국(27명)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63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한국어문학과, 국어교육과, 국어문학과였으며 소속학교는 정치대학교(이상 대만), 북경대학교·남경대학교(이상 중국),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경희대학교(이상 한국) 등이었다.

설문 조사에 응한 대학원생은 남자 12명, 여자 51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화권 대학원생의 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도 조사하였는데 한국어 학습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5개월까지였다. 학습 기간이 1년 이하가 22명, 1년 이상이 41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0개월에서 90개월 사이였다. 대체로 1년 이하의 학생들이 37명, 1년 이상의 학생들이 26명이었다.

3.2 설문 분석 결과

설문 조사에서는 우선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리커드 척도를 사용해서 1점~10점까지의 점수로 자기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대만	6.45(2.01)	7.43(2.05)
한국	6.05(2.47)	8.13(2.24)
중국	5.55(2.36)	7.13(2.14)

전체적으로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는 높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는 3개국 중에서 스스로 한국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1년 이하	5.63(2.40)	6.99(2.30)
1년 이상	6.26(2.32)	8.43(1.74)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는 1년 이하와 1년 이상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났다.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남자	6.29(2.55)	7.02(2.82)
여자	5.80(2.39)	7.71(2.01)

	지식과 태도	사전의 필요성
1년 이하	6.23(2.21)	7.94(1.91)
1년 이상	5.71(2.46)	7.39(2.32)

성별과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 전문용어사전의 필요성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위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63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는 한국어학과 관련된 840개의 개별 전문용어에 대해 리커드 척도를 사용해서 1점~10점의 점수로 이해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표 5>는 840개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 점수이다. 이해도가 높은 전문용어는 한글, 외래어, 단어, 동사, 명사 등이었는데, 한국어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학습할 때 배울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았다. 한편 이해도가 매우 낮은 전문용어는 딕토글로스, 이러닝, 등어선속, 주목 가설, 근본적 차이 가설 등이었는데, 한국어 교육학이나 방언학 등 응용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순위	전문용어	이해도	순위	전문용어	이해도
1	한글	9.31	821	랑그	2.72
2	외래어	9.28	822	하향식 모형	2.72
3	단어	9.28	823	재구	2.71
4	동사	9.09	824	동격관형사절	2.70
5	명사	9.07	825	의무적 문맥에서의 사용	2.65
6	주어	8.97	826	경계 성조	2.59
7	높임법	8.94	827	제자해	2.55
8	방언	8.93	828	퇴행	2.52
9	한자어	8.86	829	시니피에	2.52
10	형용사	8.83	830	문식성	2.50
11	의존명사	8.79	831	음상	2.48
12	교과서	8.77	832	입력 홍수	2.47
13	자음	8.74	833	기본 층위	2.45
14	대명사	8.74	834	원격동화	2.35
15	표준어	8.65	835	포합어	2.35

16	존칭	8.62	836	근본적 차이 가설	2.00
17	학습	8.62	837	주목 가설	2.00
18	의문문	8.62	838	등어선속	1.97
19	고유어	8.62	839	이러닝	1.76
20	문장	8.59	840	딕토글로스	1.66

4.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4.1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강현화·신자영·원미진(2010)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도 우선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학 기본 교재의 인덱스를 기초로 하여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를 1000여 개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어학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어학에 필요한 전문용어를 840개로 추렸다. 물론 대규모 한국어학 교재나 논문 말뭉치를 구축하고 그 빈도를 바탕으로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할 수도 있겠으나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말뭉치를 구축하는 한국어학 교재나 논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 개입이 전혀 없는 객관적 방법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즉 한국어학 전문가의 평가가 어느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학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남겨 두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는 데에는 한국어학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한편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 그 사전의 기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즉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의 표제어를 교육용 전문용어로 봐야 할

지 기초 전문용어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있다. 교육용 전문용어는 한국어학의 일정한 교육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전문용어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학을 학습하고 전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전문용어는 말 그대로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기준에 맞춰 선정된 주요 전문용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어학 기초 전문용어는 한국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용어로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습자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선정 기준과 범위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기초 전문용어를 우선 고려하여,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이나 한국어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용어사전을 전제하고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어학 전문가의 주관적 평정과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어학 교육용 전문용어를 추가하고 보충하여 총 600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4.2 전문용어사전의 뜻풀이

본 연구의 전문용어사전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대역을 채택한 것은 이중언어 사전(다국어 사전)의 학습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axter(1980)는 영어 학습 사전에 대한 연구인데, Baxter(1980)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은 영영사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학습자들이 영영 사전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뿐, 영영사전을 영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중언어 사전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도 영영사전보다 이중언어 사전이 낫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Laufer & Hadar(1997)는 영영 학습자 사전, 이중언어(화) 사전 간의 효율성 차이를 따지는 연구인데,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영어 학습자가 위의 사전을 통해 모르는 단어를 학습하고 이해한 뒤 가장 도움이 되는 사전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위의 사전을 사용하게 한 뒤 시행한 단어 이해도 테스트 결과를 학생들을 사전 사용의 능숙도에 따라 세 집단(상, 중, 하)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세 집단 모두

이중 언어(화) 사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았다. 이 연구는 단일어 사전보다는 이중 언어(화) 이 더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어학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학습하는 이중언어 사전이다. 한국어 뜻풀이의 경우, 전문용어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가 쉬어야 하지만, 전문용어와 관계된 언어학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해당 표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예문이나 예시를 통해 표제어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 대역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뜻풀이는 중국어로 대역할 때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어휘나 표현은 피하고 비교적 의미가 명확한 기초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어 뜻풀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대역 뜻풀이도 제시한다. 중국어 전문용어의 표제어와 뜻풀이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에 대응되는 것으로 중국 및 대만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어로 표기된 언어학 용어이다. 중국어의 경우, 간체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번체자를 사용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고려하여 간체자와 번체자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모두 채택하였다.

4.3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 적합성 검증

본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구축한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가 과연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들에게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본 연구의 성과는 주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학 전공자들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용어사전의 기초자료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다. 우선 중화권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학부 4학년 학생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교양 수준이 아닌, 한국어학을 학문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단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문용어사전이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적합한지 충실히 검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표제어 선정과 설문 조사 분석 과정 등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을 고찰하였다.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어학 사전의 기술 방법과 상이한 접근을 취하며, 종이사전 형태뿐만 아니라 웹기반 온라인 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특성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어-중국어의 대역사전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가

스스로 자가 학습을 통해 전문용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은 현재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4학년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감수와 수정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는 기존 사전들의 방법론을 수용하되, 중화권 한국어문학 전공자들만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물론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기초자료에는 여러 문제점도 보인다. 위의 한국어학 전문용어사전의 구축은 새로운 시도이자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남겨져 있다. 특히 사전 구축 절차상의 문제나 600개 표제어 선정의 타당성 문제, 중국어 대역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그들의 자료 부족을 해소하려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문용어사전 구축의 필요성과 표제어 선정, 뜻풀이 집필 원칙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기초 전문용어사전은 앞으로 다국어 대역의 기초 자료로서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학습자를 위한 사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위의 전문용어사전의 변별적 특징이다. 한편 중화권 한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용어사전 구축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사전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학 전공자용 사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

다. 따라서 사전의 설계와 편찬 과정에서는 한국어학 기초 용어를 선정하고 교육용 자료로 필요한 언어정보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어학 기초 학습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출문제나 응용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